

The Book of Isaiah

마지막 때를 위해 남겨진 하늘 아버지의 호소

이사야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 그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 책입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보물인 것입니다.



유리바다 선교회

유리바다 선교회는 엄숙한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희들의 표어요, 저희들을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복음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www.seaofglassministry.com







마지막 때를 위해 남겨진 하늘 아버지의 호소
이사야서



이사야서

초판 발행 2025년 2월 15일

초판 1쇄 2025년 2월 15일

지 은 이 이주은

편 집 인 박재영 (Peppre Digital Agency)

펴 낸 곳 유리바다선교회 (Sea of Glass Ministry)

주 소 73 Back Brook Road, Ringoes, NJ 08551

인 쇄 진홍문화(주)

전 화 USA +1 201 638 8481

전 자 우 편 info@seaofglassministry.com

이책에 실린 글과 도표의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본 서적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Copyright 2025 by Sea of Glass Ministry.



이사야서 발행목적

이사야는 유다의 왕 웃시야(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60년간의 봉사를 수행한 유다의 선지자요 정치가였다. 웃시야 왕 시대의 유다와 여보로암 2세 치하의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였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번영은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으며, 그들의 종교는 외형적 형식에 집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참된 의미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 따라서 그 나라는 사회적으로 깊게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도덕성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욕심과 탐욕과 악덕이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앗수르의 전성기에 있었으므로 그의 위협이 항상 유다를 괴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시야적 선지자였다. 그 당시의 형편을 묘사한 이사야의 글은 마치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와 경고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일깨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Contents

Chapter 1

성경을 소개하며

11

Chapter 2

이사야서

17

Chapter 3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과
우리의 의무

230

Chapter 4

이사야와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비치는 빛

244



chapter I

성경을 소개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두 뇌와 손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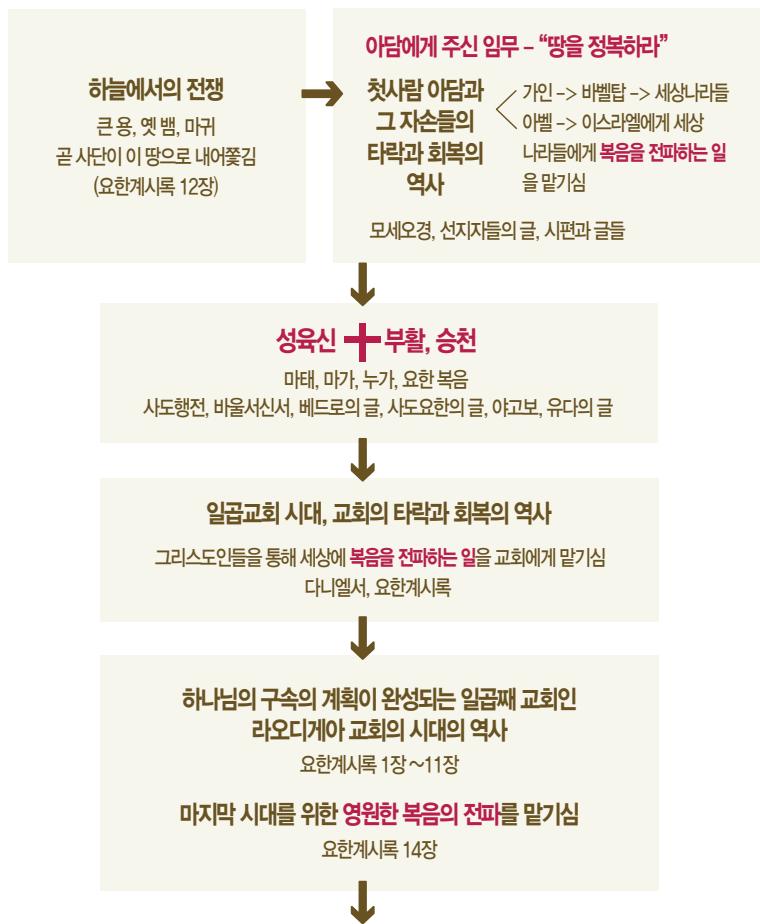
둘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준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경륜”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이 성경의 대주제이다. 성경의 모든 책, 66권은 모두 다 구속의 경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의 계발을 이루어낼 수 있다.

성경

선과 악의 전쟁의 역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가동







“그가 짚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
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chapter 2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이사야서

이사야는 유다의 왕 웃시야(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60년간의 봉사를 수행한 유다의 선지자요 정치가였다. 웃시야 왕 시대의 유다와 여보로암 2세 치하의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였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번영은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으며, 그들의 종교는 외형적 형식에 집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참된 의미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 따라서 그 나라는 사회적으로 깊게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도덕성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



다. 욕심과 탐욕과 악덕이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앗수르의 전성기에 있었으므로 그의 위협이 항상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시아적 선지자였다. 그 당시의 형편을 묘사한 이사야의 글은 마치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읊겨놓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와 경고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일깨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사야서의 6가지 주제들

-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공의와 자비로 이루어진 그분의 의로운 품성에 대해 이스라엘은 잘 알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이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또한 당신과 같이 의로운 품성을 소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과 의로우시므로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 종교는 의식의 철저한 준수 또는 종교상의 예법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 곧 사람의 마음과 성품의 개혁과 거룩하고 흡없는 삶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 종교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성품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 히브리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재난과 황폐의 날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임할 것을 전한다.
-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한 남은 무리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신뢰하며 그의 법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글과 고난당하는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사실적인 영감의 묘사가 적혀있다. 이 방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의 구원의 소식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으로 깨어나기를 명하였다.
-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인류와 지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Isaiah 1 이사야서 1장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죄를 충실히 책망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죽음의 장면이 “톱으로 켜는 것”(히 11:37)이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행하는 한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거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룩에 대한 첫 이해는 죄에 대한 것으로 시작한다. 죄는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죄가 얼마나 증오스러운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에게 구세주의 필요성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깊이 반응하면 그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도록 성장할 것이다.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은밀한 과오들은 정복되어야 한다. 자기 자

신에 대한 성격적 이해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힘이 되어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 그리고 질투심 같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게 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매일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부지런하고 올바른 성경연구 그리고 빈틈없는 경각심이 요구된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향상시켰더라면 우리가 될 수 있었을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히 13:17 참조)

믿음의 안목 즉 믿음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깨어있어야 한다. 현재와 영원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히는 일 또한 끊임없는 기도와 성경연구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 지금은 영원한 세계의 접경에 서 있으므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엄숙한 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영원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박하고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자. 각자 자신의 심령을 하늘의 빛 가운데서 살피고 의의 태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광명한 빛이 모든 영적 흑암을 몰아내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시기를 마음속 깊이 간구드리자.

옛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우리는 깨

어있어야 한다. 이 경고의 교훈은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과 형식과 의식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은 세속으로 물들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사람됨 곧 품성은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실패하였다.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품성이 성경의 기준에 도달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전심이란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성경에 그 근거를 갖고 있는 마음이다. 전심이 아닌 마음 곧 내가 살아있는 마음은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성실과 정직을 떠난 내키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마음은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움직이게 되어 자신의 영혼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의거하여 품성이 완전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믿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임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분수와 위치를 지킬 줄 아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살아냄으로써 이르게 된다.

그렇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은 신비한 것이나 또는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품성이다. 모세에게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 깨닫게 되도록 성령께 간구드리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 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 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 33:18-23)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 34:5-9)



Isaiah 2, 3

이사야서 2장, 3장

이사야 당시의 유다는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 비록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가장 큰 위험은 백성들의 완고함이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 교만과 허식을 사랑하며 술취함과 경쟁의 정신이 사회에 만연하였다. 그들에게 우상숭배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었으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성행하였다. 이 사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과 특권과 기회들을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를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들판의 꽃과 하늘의 새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꽃을 피우고 날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호흡을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에는 교훈과 책망과 경고와 격려가 되는 풍성한 허락들이 가득하다. 오래지 않아 파

멸될 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우매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때가 다 지난 후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에서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자. (히 12:16,17 참조)





Isaiah 4, 5
이사야서 4장, 5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학식이 많은 자들이 어려워하는 글이기도 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맏형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말씀이기에 읽는 자의 마음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진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마음에 자신의 것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 할 것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배운 것과 익혀온 관습과 전통 그리고 습관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신비한 것들을 주시고 그 해석을 비밀에 불이신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상태 곧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하늘의 신비를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일에서 하나님께 대한 많은 오해가 생겨났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신 29: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 10:27)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행 13:22)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하므로” (행 17:11)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자. 그분께서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남겨 주셨는지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자.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넘치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해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것이며 그렇게 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께서 “여호와의 싹”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그분을 진실로 믿고 산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기록책에 “거룩하다 칭함을 얻”(사 4:3)을 것을 알려 준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하여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히 3:8;4:7)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약 1:8)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4, 3:15)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3)

“여호와의 싹”에 대한 선지자 스가랴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는 증거하기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것을 전하였다. 또한 하나님과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평화의 논”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여 준다. 그렇다. 우리 구주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셨으며 (계 13:8 KJV) “창세 전부

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벧전 1:20)이셨다. 그분은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구속의 계획 즉 평화의 의논을 하나님과 가지셨던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자랑이 될 것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4:2;11:1,1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렘 23:5)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니
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나게 하리라” (슥 3:8)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름이 나뭇가지라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
으리라 하셨느니라” (슥 6:12,13)

진정한 평화의 성격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알
려준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봉사
때에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
다”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눅 19:41,42) 우리는 지금 이 은혜가 풍
성한 때에 이 평화에 관한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리고 포도나무들을
심으시고 기르시고 계신다. 당신의 피로 물 주시며 자라나기를 기
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
비하심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의 우리의 할 일
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분의 요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

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와 하나님가 되시고자 하시는 구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5)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사 32:17,18)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사 1:27)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눅 19:4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 21:43)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강력한 단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선과 악의 구별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그어놓으신 선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인간의 지혜와 재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디에 발판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지 엄숙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Isaiah 6 이사야서 6장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한다. 하늘의 스랍들은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어진 거룩함을 찬송한다. 이 땅의 성소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성소의 광경을 보고 자신의 내적 불결함을 알게 되었다. 지상성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봉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눈을 이사야처럼 하늘성소로 향하게 할 것이다. 사람을 위한 구속의 계획이 담겨있는 성소제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가 예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다(사 6:5) 그는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대표하는 이타심과 자아희생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지혜와 재능이 참으로 무가치하고 보잘 것 없음을 알게 알았다.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를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도 터져나오지 않았던가!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원하여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다. 이사야와 바울, 그들이 경험했던 죄에 대한 순수한 자각의 경험은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어야 하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즉 “죄인 중에 괴수”(딤전 1:15)임을 절감해야 한다.

이것이 죄에 대한 순수한 자각이다. 이것이 아닌 것은 우리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도리어 자신을 변명하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되어 겉으로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빛 아래서의 곧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보게되는 나의 참 모습에 대한 경험은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한다. 흄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드러났기에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경험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 경험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



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10-12)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11:19)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둡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아야 하며 우리의 입술에 제 단의 핀 숯불 곧 성령의 역사를 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갈급한 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성소에서의 경험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이상을 통해 이 시대와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도 요한도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를 보게 되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들 또한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지성소 곧 은혜의 보좌에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감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는 겸비의 마음이 되어 다시 오실 구주를 열렬히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빛 곧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망하게 되었던 부정한 입술”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 가르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마 12:36,37)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다시말해 말의 법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세번째 계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교훈이다.



제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 20:7)

신상수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겸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죽어 나느니라”(마 5:34-37)



우리는 한 모금의 공기나 한 조각의 햇빛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 그분의 것이 되었지 않은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는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할 기본 생각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한 피 곧 하나님의 생명의 맷가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한 그 어떤 것도 책임질만한 능력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정확한 진실에는 그 어떤 자만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견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으로는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교훈에 유의한다면 남을 향한 악한 추측과 조롱의 말이나 불친절한 비평의 말을 삼가게 될 것이다. 기억하자, 참된 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죽어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잊지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순결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입술을 만드시고 말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 곧 정확한 진실에서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햇빛과 같이 투명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자.

이제, 우리에게서는 경솔하고 어리석게 발해지는 조롱과 농담 같은 천한 말들이 사라져야 한다. 거칠고 불친절한 말과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정신과 성질에 이런 특질이 섞이지 않도록 경계하자. 이것을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명상의 주제로 삼자. 그러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찰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사 6:5)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진리 :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단순, 명확하다

오류 : 무수한 형태를 가진 악으로 사단에게 속한 것으로 복잡, 미묘, 불투명 하다.

참 그리스도인 =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계 14:5)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6)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 4:2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후 6:19,20)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 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잠 4:23;23:7)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렘 17:9,10)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둑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렘 4:3,4)



Isaiah 7, 8 이사야서 7장, 8장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아하스 왕의 태도를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시대의 아하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의 행함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정치적 외교로 아하스 왕과 유다는 일시적 구원은 받았으나 그 나라는 얼마나 비싼 댓가를 치렀는지 모른다. 결국 그는 치세의 말년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고 말았다.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이었다.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주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만형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 배우고 익히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5,16)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성경에 등장하는 버터와 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영적 번영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였다. 이 땅에 어린아이로 우리처럼 세상에 오신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음을 버터와 꿀이라는 상징으로 알려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서 난지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히 2:11,14)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히 2:17,18)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며 우리의 보증인이고 대언자가 되신다고 가르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세상의 열국들이 함께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끝에 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될지라도 놀라지 말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곧 하늘 성소에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호소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함을 받아야 하며 그 율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을 삶으로 해내야 한다. 그 옛날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싸매고 인을 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자일지라도 또는 종교계의 큰 별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사 8:20) 곧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한다. 다시말해 그들의 생각과 습관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형식과 의식 또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그리고 인간의 재간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높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된다. 가룟유다의 마리아를 향한 질책은 경건을 가장한 이기심과 시기심이었다는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자. (요12장 참조) 가룟유다의 정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불화를 심어 놓으려고 애쓰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며 성경대로 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 곧 우리의 생각과 습관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늘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익히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어디에 있으냐에 달려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의 생각과 습관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취급하는 모든 것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세상과 사람들이 정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신 방법과 기회들을 등한히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기도가 요구되어지고 더 열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순간도 마음의 빗장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경고와 교훈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이고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자. 그러면 우리는 곧 영원한 진리의 높고 거룩한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영, 생명, 진리, 길, 하나님의 능력, 지혜 = 예수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4)

영적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성질, 경향, 상태

영적 분별력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아내는 지혜

진리 = 주의 계명, 율법, 증거, 말씀, 의, 이름 = 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 그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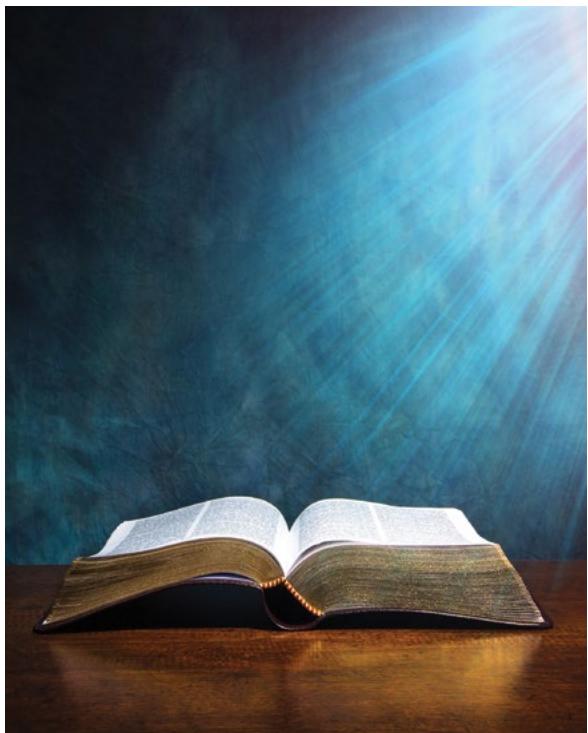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진리를 찾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곧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것을 믿고 배우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모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와 토대를 세우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사 8:20)아 이루어져야하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낮아질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 마른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이치로써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어 진리를 찾는다면 자연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여기에는 단 한올의 인간적인 요소나 그 무엇도 들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여호와 우리의 의

라 일컬음을 받”(렘 23:6)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여 배우고 성장하여 진리를 통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할 믿음으로 말이암는 의이다.





Isaiah 9, 10

이사야서 9장, 10장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사 32:17,18)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 안에 치료
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말 4:2 KJV)

은혜와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
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사 9:6)
이라 소개한다. 이 평강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와 효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사 32:17)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좋고 가
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
는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우
리에게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다. 사람
이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
을 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



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공의를 악용하여 그 결과로 부패한 사회가 되었다는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자.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는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자만과 편견이 들어있지 않다. 인류의 역사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행 17:26,27)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세우시고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이 원칙을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는 율법의 생활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일은 우리의 생명이 되므로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부주의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 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



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시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 32:46,47) 이 땅의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그들의 성공 여부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각 개인에게도 적용되어 개인의 성공 여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루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각 나라와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안에 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를 들고 각 나라와 개인들을 재어보고 계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면류관을 제하라 관을 벗겨라 이 것은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패망에 패망을 거듭할 것이니라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겔 21:26,27)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몇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4,25)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7-39)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 또한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으며 곧 중대한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과 같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영원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일시적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만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서 풀의 꽃과 같은 표면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의 무가치함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지 않은가.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Isaiah 11, 12 이사야서 11장, 12장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망하여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눅 24:27)해 주셨다.

예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구약성경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이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또 승천 후 그분의 사역과 미래의 영광에 까지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의 도를 믿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 주신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잘 배우고 익힌 사람들의 책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약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것이다.

메시아를 제시하신 길

아담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니라”(창 3:15 KJV)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안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하였음이니라 하셨다”(창 22:18)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찌너라”(신 18:15)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럿을 가리켜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6)



메시야의 혈통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 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 11:1)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사 11:10)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나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으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사 55:3-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5,6)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마태와 누가는 각각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다윗의 두 아들인 나단과 솔로몬의 자손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메시야의 탄생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께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성격과 내용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빙빙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사 11:2-5)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갈친 자에게 놀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회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친승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타나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1-3)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꺽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양명하리라”(사 42:1-4)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배우고 익힌 침례요한은 그분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미 5:1)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둘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칙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걸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뽕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깊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 22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지니 서 있을 곳이 없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 하는 자들이 강하였으므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베옷으로 내 몸을 입었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방하며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진흙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깊은 물에서 구원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며 깊음이 나를 덮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히 아프게 하였으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

나 없고 위로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 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함정이 되게 하시며 평안할 때에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의 치신 자를 필박하며 주의 상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더하나이다 그들의 죄악을 더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돌아보시며 자기의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중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세우실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 살리로다” (시 69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흄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묘심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 53장)

죽음의 방식과 목적

“모세가 광야에서 범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6)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 이해는 우리에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바르고 조화롭게 이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 열쇠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곧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에 대하여 역사와 예언을 통해 알려주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예언에 나타난 그분은 세상이 반기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 평범한 사람으로서 빈곤과 비천의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멸시와 거절과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으로 알려준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이해를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분의 사상과 습관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삶 곧 의를 배우고 따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신비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하늘로 가는 길에 큰 빛이 되어줄 것이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 25:10)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리” (벧후 3:11-14)

십자가는 영원무궁토록 그분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발해지는 빛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성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하늘성소에까지 그 분과 함께 들어가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늘의 겸비를 갖춘 자들이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 12:2-5)





Isaiah, #13, #14

이사야서 13장, 14장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성취 여부에 달려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므로 그 예언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성경은 밝히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 한다. 이 얼마나 확신과 용기 를 주는 하나님의 위로인가! 우리는 성경을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열심으로 찾아야 하며, 끊임없는 열렬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는 곧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알려준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사 13:12)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다. 이 약속은 우주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알고 느끼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

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맡기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이요 조롱거리이며 무력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 내어 맡김은 주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두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의 가치는 하늘로 상승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너희가 양 우리 사이에 누울지라도 그 날개가 은으로 입혀지고 그 깃털이 황금으로 입혀진 비둘기 같도다” (시 68:13)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으리라” (계 22:4)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하나님아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옆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바라보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공의로 이끌어 내시며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미 7:7-9)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8-20)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시 112:4)



바벨론 왕으로 묘사된 사단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알려줌으로 우리가 그 존재의 특성과 계책과 속임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사단의 존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교묘하게 퍼뜨려 천사 삼분의 일을 타락시켰으며 그 불신의 결과로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자로 드러났다. 그에게 대하여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꾸는”(계 12:9)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가 이 땅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천사들을 속인 자요 하늘에서의 전쟁을 이 땅으로 가져온 자이다. 그는 죄의 창시자요 슬픔과 불행과 파멸의 제공자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로 속이고 부추기고 편을 가르고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고 미묘하게 해석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없애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곧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엄격하시기만 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또는 법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을 오해시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또한 사단은 자신에 대해 거짓된 정보 곧 자신을 그저 뿔달린 흉한 존재로 세상에 부각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 대해 안심시키는 일을 여러가지 노선을 통해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단의 정체를 밝히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속임과 계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훈들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자.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발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애로 보여 주셨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충족시켰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는 그분으로 하여금 갯세마네와 골고다에까지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유를 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4-35)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음을 아노라 그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3-6)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 1:25)

그렇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믿음은 성경에 제시되어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정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라고 알려준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단에 대해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즉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선지

자는 사단이 반역자가 된 그 마음을 이렇게 알려준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겔 28:14,17) 사단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였다. 그는 허락하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자요 하늘과 땅을 더럽혀온 원흉이다.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단의 결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



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려주셨다. 우리의 책임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을 따라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구원은 각 개인의 몫이며 어떤 나라나 조직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패배는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때 이후로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도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을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 14:12-15)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흥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황옥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석류석과 에메랄드와 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께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혀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멀하였도다 네가 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네 영광으로 말미암아 네 지혜를 더럽혔도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구경하게 하였도다 네가 네 죄악이 많고 네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요 네가 놀람이 되고 영원히 다시 없으리라 하셨다 하라” (겔 28:11-1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 12:7-12)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10)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사 14:24) 아멘.



Isaiah 15~23
이사야서 15~23장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무시한 나라들의 이야기 곧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에 따른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인해 심판을 자초한 나라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활 원칙과 교훈이 적혀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많은 나라들의 몰락의 이유는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한 사람들의 잔혹함과 탐욕이 그 원인이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렙 48:29)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훼방함이니라” (슥 2:10)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무능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즉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줌으로 인해 부요해질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활 원칙

과 계획이 인류 사회에 제대로 실행되었더라면 세상은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자원들을 충분하게 주셨기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절제되어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쟁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35,36)

“네 이웃에게 무엇을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무엇을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레 25: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네 형제 중 기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펼치며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신 15:7,8)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 24:17)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 37:21)

“너는 모략을 베풀며 정의를 행하라 대낮에 밤같이 네 그늘을 짙게 하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를 나타내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 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악탈하는 자가 없어 지고 학대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망 하였음이라” (사 16:3,4)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42)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눈에 숨기워져 있지 않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

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가 계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의 맏형님이신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 곧 지성소에서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 받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4)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 2:18)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우리를 위한 속죄사업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 아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벧전 1:1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 3: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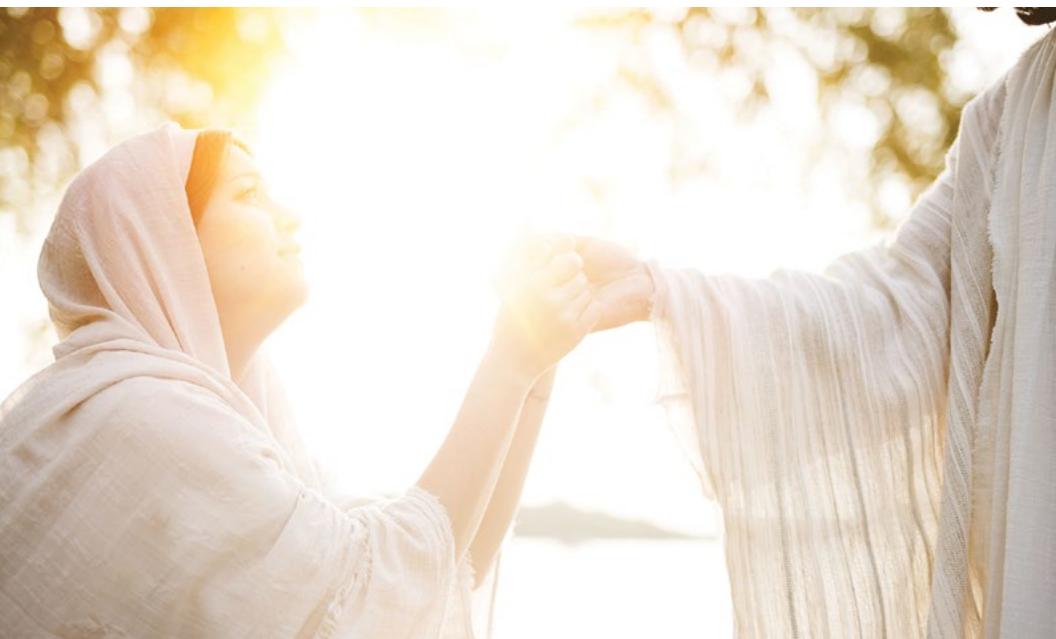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이 자비의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도 의롭게 되는것 그리고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시다는 것과 우리에게 상주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이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 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사 17:7)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은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회

복에 있다.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을찌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훼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 (미 2:10;사 10:22,23)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경고를 귀기울여 들어보자.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로 선택하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이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자. 그리고 그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자.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올바른 가운데 모든 것을 헤아려야 한다. 즉 그분의 변함없고 넘치는 사랑 안에서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결코, 인간의 지혜나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반역적인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그 마음은 사단에게서 온 생각으로 시작되어진다 는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말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20)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 144:4)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잠 23:7)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버렸음이라” (렘 6:1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9,10)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 40:18)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렘 17:9,1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렘 29:11)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3-5)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가짜 겸손이며 자만의 결과이다. 참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에 대해 깨닫는 상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1:14)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전 1:15)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1-8)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0-14)

이사야서에는 유대 나라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모두 성취되었으며 또한 역



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완고하며 이상스럽게 괴팍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철회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리신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와 같이 괴팍하며 완고하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세상 열국들의 흥망성쇠와 마지막 때에 대한 형편을 알려주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 교훈들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어찌된 일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마음에 가득한 편견과 오해를 떨쳐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종 다니엘을 통해 유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안목이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볼 수 있으며 장차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때이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 때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트집잡기를 좋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때처럼 진리를 말하면 살펴보지도 않고 각자의 편견에 따라 이단으로 매도하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엄숙한 마

음으로 성경을 펴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끝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견치 아니한 때에, 예견하는 그때 보다 속히 올 것이다. 세상과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환난의 때를 알려주고 있다. 들어보라. 때를 기다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사 21:11) 신실한 하나님의 파수꾼의 대답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사 21:11,12) 밤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파수꾼은 영광의 아침이 올 것을 알려주며 어두운 흑암과 시련의 때인 밤이 함께 올 것 또한 말하고 있다. 이제 곧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호소와 경고를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겨서는 안된다. 돌아오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온 마음을 드리자.

“슬프다 그날이 크니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라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렘 30:7)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 12:1)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 24:6-9)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하시리라”
(마 24:21,22)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약속과 보증과 맹세가 있지 아니한가.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 1:7)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사 26:20)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돌아오고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 49:14-17)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침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계 1:9)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 7:14,15)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툼을 그치게 하는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간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 6:16-20)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 서 건자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

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놀 램과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 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 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 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 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불들어 밭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시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족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 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 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 91편)

정직하게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생애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영원을 위해 겪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기에 그 시련과 고난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의 여정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의 실체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과 신뢰의 믿음을 갖게 한다.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성장은 세상 끝에 당할 환난들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중요하며 귀한 시간들이다. 우리 모두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

떻게 사용하며 살아내야 하는지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되기를 간구드리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롬 8:17)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려할 줄을 앓아라” (고후 1:5-7)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 2:1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2-14)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 3:17)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서리요 그려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훈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 어다” (벧전 4:16-1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그 성의 성과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며 그 성



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흉마노요 여섯째는 흥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자수정이요 열두째는 흥옥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계 21:18-21)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핫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1-5)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7-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10,11)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평안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그때의 묘사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또 너희가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저수지를 위하여 물을 모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양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 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뽑으며 굽은 베를 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사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 22:9-14)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고상해지고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경건과 신성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겨야 하는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본을 통해 이 웃들이 선한 원칙들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번의 무모한 행동이나 말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의 감화를 그 누가 알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
과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 같으니라” (잠 25:11-1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우리
의 양심에 깊이 그리고 단단히 박히도록 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 특
별히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이해가 필
요하다. 하늘로 가는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
서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용시켜 나가
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
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운데
돈을 벌고 그것을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
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만 안전하다는 성경
의 교훈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자.

“그러나 그 무역한 것과 그 얻은 값은 여호와께
성물이 되리니 그것이 간직되거나 쌓아두지 아
니하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풍족히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이 되리라” (사 23:18)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
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

영적 파수꾼

- 사람들의 안전은 이 파수꾼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된 사람들
-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 죄의 확실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신실히 경고할 수 있게 된 사람들
- 지성과 덕성 그리고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
-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신실히 일하는 사람들

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겔 33:7-9)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 9:16)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결코 우리 자신들이 아니다. 지금은 하늘이 땅과 아주 가까운 때요, 마지막 자비의 호소가 내려지고 있는 은혜의 때이다. 지금은 아침이 올 때 가 가까운 때이므로 어두운 밤의 때이다.

세상과 우리 모두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으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무릎으로 나아가자.



Isaiah 24~27 이사야서 24~2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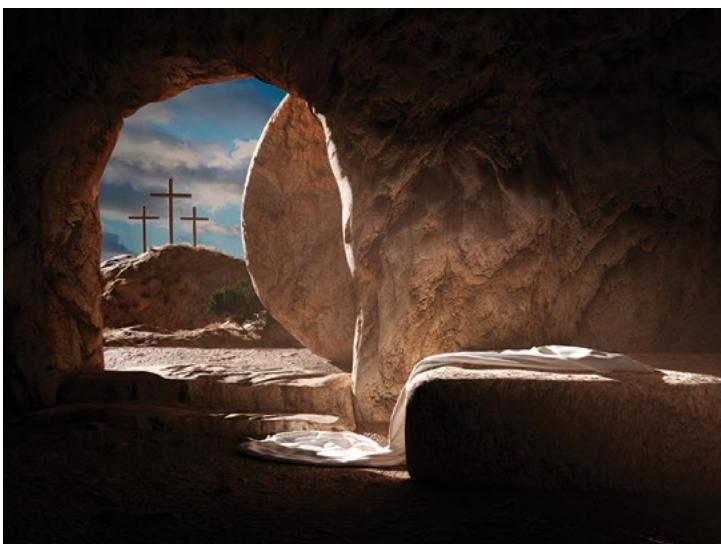
여호와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사 24:5)이라고 알려준다. 24장의 묘사는 마치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마지막 때의 일곱재앙의 결과와도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남은 자에 대한 언급과 그들이 “동방과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사 25:15) 곧 온 세상에서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 내고 있을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름다운 광경에서 눈을 돌려 자신의 현실을 보며 다시 그 심판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때의 묘사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큰 지진”(계 16:18)의 모습과 같으며 하늘의 악한 천사들과 그들의 대리자였던 이 땅의 통치자들을 벌하실 것과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 동안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옥(공허해진 지구=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황폐해진 곳)에 갇혀 있을 것을 알려준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 가운데서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적혀있다.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사 24:23)

게 될 찬란한 그분의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모든 예언은 그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묘사되어진 이 세상과 지구의 파멸의 모습과 이루어질 우리의 회복과 영광의 광경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각 책을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책은 우리를 요한계시록으로 안내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맞을 준비에 대해 깨어있게 될 것이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사 24:5)

“여호와여 지금은 때이오니 주의 법을 폐하려고 그들이 일하였나이다”
(시 119:126)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 25:8,9)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계 21:3,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 길로 오라고 하신다. 곧 마련해 주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라고 하신다.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 일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단의 함정과 올무가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견고한 성읍”(사 26:1)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을 하나님의 법의 올타리로 보호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서 용서가 이르러 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참 신앙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유일한 신앙이요, 영원한 복음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며,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활동적인 사랑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억하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세속주의 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혹하여 우리 안에 정욕과 교만의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악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빈틈없이 쉴새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단을 멸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사단을 향해 이렇게 외치자. 나에게는 이 세상 임금을 멸하신 구세주가 계시며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자. 우리에게는 각자의 밀실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곳은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길에서 호흡하며 행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하늘의 악의 영들도 우리와는 무관한 것들이 될 것이다. 정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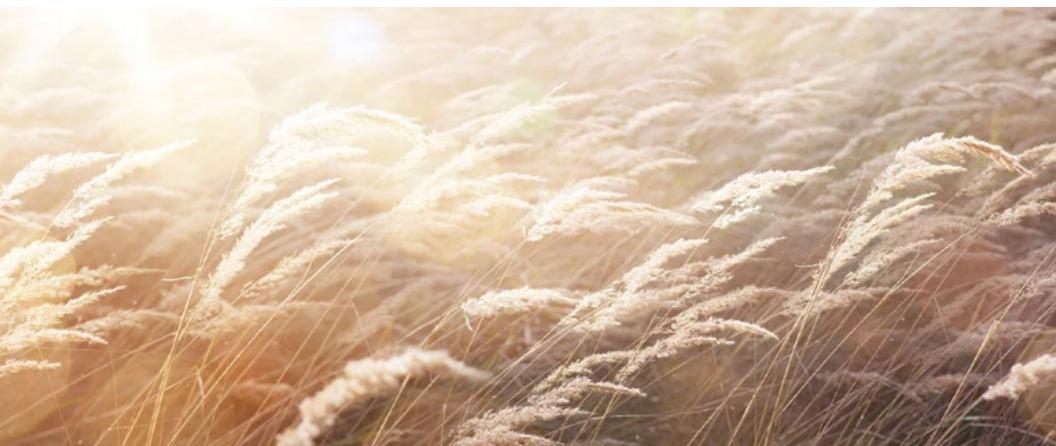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2)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2-39)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사 26:20)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 49:14-16)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읍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리리라” (렘 33:16)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 세상에 어두운 밤이 올 것 또한 경고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밤에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의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를 만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주의 판단을 내리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사 26: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사 26:19)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6-18)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한 인생의 행로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택하셨으며 당신께 오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오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4,5)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탐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찌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겔 33:11-16)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10,11)

“망령되고 혀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딤전 4:7)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고후 4:17)할 것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자. 십자가의 빛 안에서 배우고 행하자. 마음의 모든 불의를 쫓아버리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자. 하나님께 굴복하자. 지각있는 자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하자.

“주께서 그를 적당하게 징계하시며 그를 쫓아내실 때에 동풍의 날에 그의 맹렬한 바람으로 쫓아내셨느니라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가 제함을 받을 열매는 이러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이 만들어 바알들의 아세라 상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라”
(사 27:8,9)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3-15)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0)



Isaiah 28~31

이사야서 28~31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를 간직하여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말씀을 읽고 행하기로 선택한 자들의 마음은 주께 드려진 마음이 아니다. 주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사 28:13)될 뿐이다. 우리는 주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 기도가 응답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기도가 사랑과 복종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희생을 치르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사 28:16)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배우고 익혀야 할 진리가 되이며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 문을 열자. 그러면 그분께서는 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곧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자”(벧후 1:4)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 2:18)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20-22)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 1:4)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모든 둑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사 29:11,12)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 남겨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편
견과 이해의 부족은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
시며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예언들을 기록하셨다. 두 책에 대한 편
견과 무지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없게 하여 예수 그
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
을 교회 문턱만을 밟고 다니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경외
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고 책망
하신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 가운데 그



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심판들은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 이 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반역과 횡포와 잔인함이 그 선 을 넘어갔을 때 베풀 마지막 때의 재앙들은 참으로 두렵고 기이한 일들이 될 것이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들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 이 아니었다. 그 말씀은 이 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 들을 위한 경고이기도 하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 를 지었고 그에 더하여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인간적인 것 에 의지하는 죄를 더하였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변덕이 많은 사람 들에게 도움을 호소해서는 안된다. 자신처럼 실수가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시험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옛 교훈에서 배

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하셨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불시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간적 수단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거쳐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졌는가! 그 어떤 사람도 힘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도움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엄숙한 교훈이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와 계시지 않은가. 사람의 지혜와 지도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목사나 교사나 백성들이나 모두는 자신들이 주님께 대하여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 큰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사야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더 이상 유한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기초 위에 각자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만을 받아들 이도록 하자. 그러면 그 빛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며 이웃들에게도 축복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거나 동료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
이 아닌 큰 손해가 되고 말 것이다.

영생을 위한 선한 싸움 즉 “죄와 싸우
되 피흘리기까지”(히12:4) 싸워야 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생명의 떡
은 각자가 먹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
리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영혼과 육체
와 마음이 그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소
생함을 얻고 튼튼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자라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이
며 마지막이며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 개인적으로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거나 의지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영적 생애라
도 위험만을 줄 뿐이다. 하나님께서 계
셔야 할 그곳에 인간을 두는 우매한 일
을 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우리의 권위
와 지도자로 삼을 때 안전하지 못한 것
은 그들 또한 약점과 결점을 가진 사람
으로서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망은 낙담으로 이어지고 낙담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맘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2,29)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전 6:11,12)

“그러나 너희는 럽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 23:8)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밭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밭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사 30:15)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

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비록 노아, 다니엘, 읍이 거기 있을찌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겔 14:20)

앗수르의 멸망에 대한 묘사는 모든 악인들이 결국 막대기(철창)로 맞게 될 것을 알려준다. 그 철창에 대해서 성경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 2:26,27)라고 말한다. 사도 요한은 재림 후 천 년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계 20:24)겨울 것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불에 태움을 받는 곳에 대한 표현은 도벳(사 30:33)



즉 “힌놈의 골짜기”(왕하 23:10)로 표현되었다. 이것의 헬라어 음역인 게엔나는 신약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었으며 사도요한은 이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준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8:2)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을 쳐서 천 년이 차기 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1,2,3,7)

그렇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구에 있을 감옥으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잡혀 있을 곳이며 천 년 후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불에 타 없어질 곳을 뜻한다.

이사야가 받은 이상과 사도요한이 받은 이상은 다 같이 마지막에 있을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성경을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있을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결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시 2:9)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6,27)

“여호와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앗수르가 놀라 도망하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되었으며 깊고 넓게 하였고 불과 많은 나무가 거기에 쌓였고 여호와의 입김이 유황 같 이 그것을 불붙이시리라” (사 30:31,33)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몰렉에게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왕하 23:10)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9,14,15)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보자. 그리고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사 31:6)





Isaiah 32~35
이사야서 32~35장

만약 우리의 마음과 눈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면 이사야서의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형편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은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의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주어졌으며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갈 때 곧 자신의 죄를 속해주시고 그 죄의 영향력과 공격성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십자가의 공로와 공효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렘 23:6)을 것이다.

사도요한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배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3-6)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10)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

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니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요일 3:1-6)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곧 참된 성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어준다. 요한은 우리와 같은 성정 곧 거칠고 이기적이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유, 관용, 친절, 자비의 정신을 보았고 또 그런 그분의 일상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온유와 겸손의 삶을 보았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끌렸고 그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그 자신을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하였고 마침내 요한은 주님께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았다. 즉 그는 그분의 성품에 대비하여 드러나는 자신의 결점과 싸우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화내기 좋아하고 야심이 많은 성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굽복시켰다. 이 굽복은 그



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통한 품성의 변화 곧 새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내었다.

그렇다. 사도 요한은 겸손한 마음 곧 자신은 주님의 손에 들린 한조

각의 진흙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이었다. 그는 날마다 자아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성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품성에도 각각의 심각한 결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곧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배우기를 즐겨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요한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케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분의 뜻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 또한 그 죽

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자라남으로 성화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신의 편견과 편협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



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들 각자가 노력해야 할 일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들 각자의 복종, 전적인 마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며 실제적 경건이며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좋은 선물인 성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것은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자아부정과 자기희생의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원칙 곧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참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들어 주시며 살아갈 능력 또한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그러므로 성화란 어느 한순간 하루의 사건이 아니며 평생동안 이루어낸 순종의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이것이 삶의 개혁이며 결코 나약해지거나 중단되거나 해서는 안되는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미신 주님의 손 곧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써 일어나야 한다. 이 필생의 사업은 오직 끈기 있는 노력과 쓰라린 투쟁과 힘든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삶 가운데서 자신이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주장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요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은 밝히 알려주기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나타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요한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의 교훈과 한마음이 된다.

질문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이 과정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답

물론 좁은 길을 걷는 것이기에 시련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길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믿음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믿는 바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배운 것을 매일의 생활 가운데의 경험 속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선물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써 우리의 사업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계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수 있는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를 완전한 정오의 빛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진리를 배우고 적용해 가는 생활 가운데서의 성장이 더디거나 멈추는 이유

답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진리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려는 자아와의 투쟁이 없기 때



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게으른 삶이라고 알려준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하여 게을러서는 안된다. 우리의 성실과 열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아희생의 삶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수고가 요구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최고의 노력으로 매일 자라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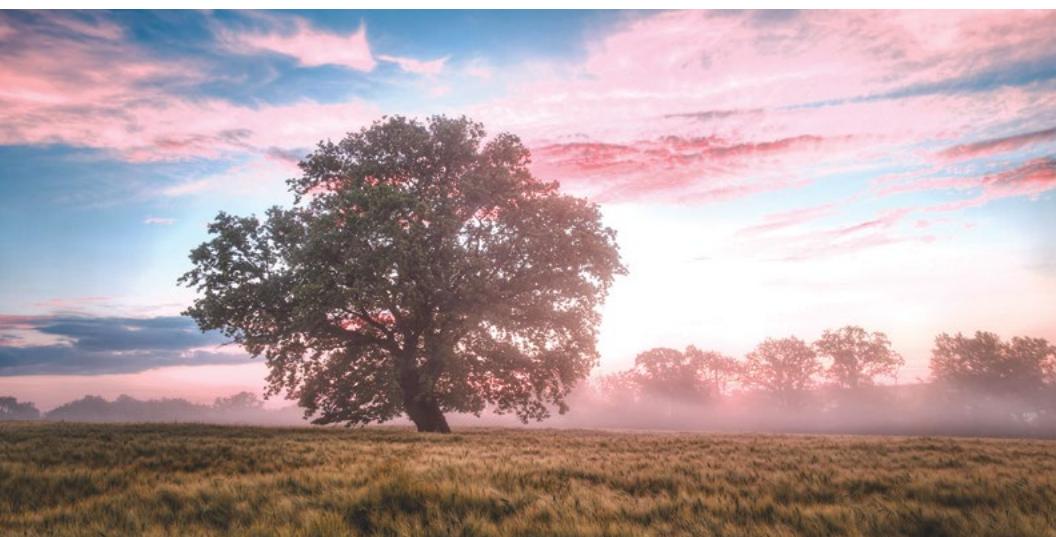
그렇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알려주기를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과 이기심과 죄악의 깊어매는 힘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성장하는 그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들은 죄와 죄악과의 탐협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아와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

의 증인으로 서야 할 때가 곧 당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창조와 구속으로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것 곧 생각과 뜻과 감정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고 구하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렬함으로 채우자. 그러면 그 분께서도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전”(사 32:17)으로 채우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의 한 사람,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을 소유한 자였다. 가룟 유다는 요한이 자신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운 것과는 반대로 그는 양심을 범하여 유혹



에 굴복하여 자신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그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진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과 소망에 조화되지 않았기에 그는 빛 대신에 어두움을 택한 자가 되었다. 요한과 가룟 유다는 모두 심각한 품성의 결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었다.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기를 선택하여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고 가룟 유다는 자신에 대하여 죽기를 거부하여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한 자가 되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정결케 하는 대신에 이기심과 시기심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이 두 예증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는가. 우리에게도 하늘은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요한과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선택을 따를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곧 사람이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할 본분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요한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사상과 편견과 견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성경은 결코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

신 것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으로 시험되어져야 하며 언제든지 진리 앞에서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비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도록 자라나야 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3,14)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로 그 힘을 삼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해 성경의 진리로부터 떠나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가.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길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한 마음인데 그중에서 영적 교만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교만이다.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교훈을 거절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대한 설명이 자신들의 전통과 사상에 일치하지 않았기에 그분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은 이해들을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과 위대함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비쳐지는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구드리자.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성령께 간구드리자. 천사

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정확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리하여 성경에 계시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막 3:17)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눅 9:54)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앓게 명하소서” (마 20:21)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3)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7,18)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 24:16)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 33:18,19)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 34:5,6)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18)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려하니라” (갈 6:14)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른 형제니라” (마 23:8)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라” (벧후 2:1)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7)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 27:1,2)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리라” (눅 11:10)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

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 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 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벼 림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전 9:25-27)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 18:1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 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 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들어 여러 가지 일을 캐묻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눅 11:52-54)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21-23)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짹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사 34:1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눅 10: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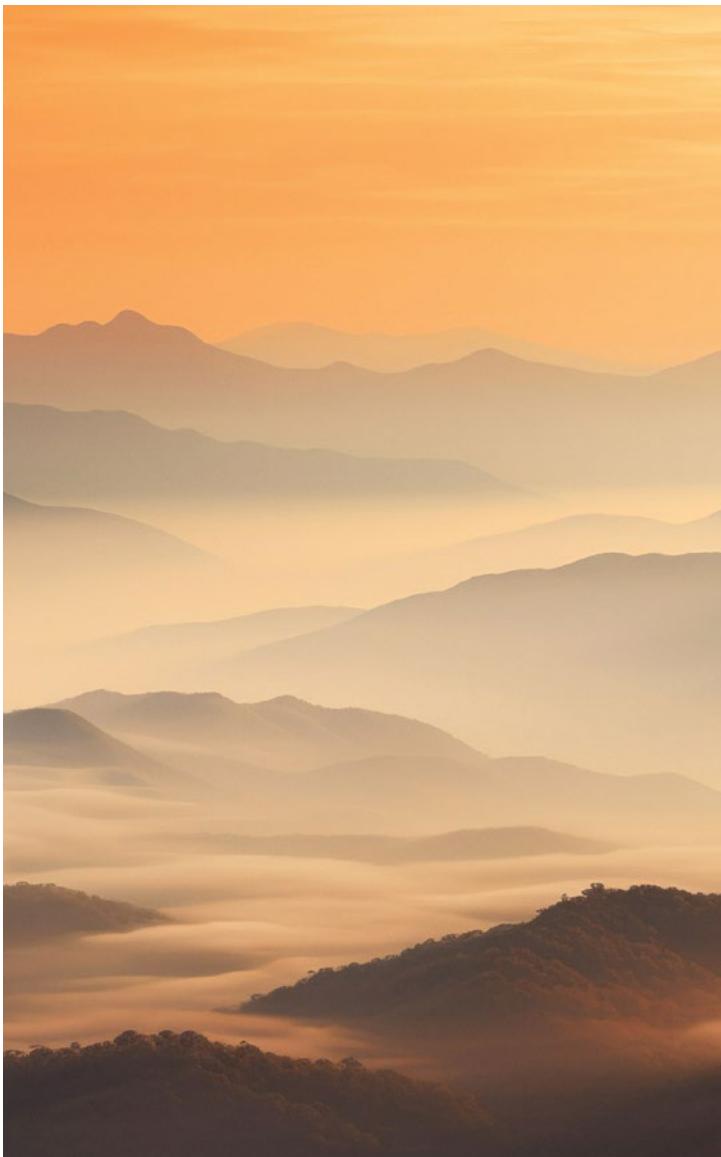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의 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깨끗하지 않은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에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사 35:8-10)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 21:4,27)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핫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1-5)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Isaiah 36~39
이사야서 36~39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글에는 우리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 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곧 그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앗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다. 히스기야 왕은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활용하여 적군을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기로 다짐하며 백성들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히스기야 왕처럼 그 믿음을 실제 생활에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유대 백성들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가 위협하고 조롱해도 그 마음은 조용할 것이며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적군의 위협과 조롱에 대하여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사 36:21)고 히스기야 왕은 상하고 통화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밤에 적군 “십팔만 오천 인을”(사 37:36) 치셨다.

그렇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신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처럼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대하 32:1)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한다. 곧 우리에게도 세상에서의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주시는 일들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산 믿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엡 4:13)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흐르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그분께서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처럼 세상 나라들과 위인들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재어보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앗수르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잔인이 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는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날들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큰 증거 또한 주셨다. 해시계의 그림자 가십도 뒤로 물러간 그 이적은 천문학 연구를 하고 있던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아직은 앗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지만 세계의 강국이 될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보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대하 32:31) 그리고 히스기야의 마음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대하 32:25)하였다라고 전한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들이 적혀져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함

이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들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차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해 그림자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찾아왔던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도리어 그가 보여주었던 금은 보화는 바벨론 사자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훗날 유다를 노략하고자 하는 길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그렇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도록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였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우리의 멸망을 음모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보고를 열어야 한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분만을 증거해야 한다. 나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하늘의 계획들과 우리를 구원코자 행하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경건의 능력에 대해 전해야 한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전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지 교리만이 아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

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게 해준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에서 우리는 자신의 결점들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일어나면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 예증되어진 증거들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하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행 17:26-31)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의 날이로다” (고후 6:1-2)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
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 2: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
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6)



Isaiah 40, 41

이사야서 40장, 41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사 40:18)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이 배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엄숙한 경외심을 갖게 할 것이며 불경에 대한 큰 교훈을 줄 것이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의 모세에게 주신 교훈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감히 손을 대고자 하였던 웃사의 일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 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 3:5,6)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으니 이는 그가 손을 들어 궤를 불들었음이라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대상 13:10)



그렇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연구에는 큰 주의가 따른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선의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의 할 일이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그분의 권한과 하시는 일은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지식 특별히 근거 없는 과학적 지식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일을 판단하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 인간의 눈에 높아보이는 이 탐구는 인간에게 큰 해를 입힐 것이며 결국 그 영혼까지 위태롭게 할 뿐이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잘못된 욕망 곧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식을 갖고자 했던 그들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들이 사단의 매력적인 말을 들음으로 얻은 모든 것은 죄와 그 결과를 아는 지식뿐이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 되었고 땅은 하늘과 분리되지 않았던가.

인간의 큰 결점은 이성을 그 가치와 한계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배워야 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위치에 인간을 세우는 가장

위험한 길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은 우상승배라는 멀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한 조각의 진흙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이 관계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순종이나 의지를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다. 인간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교만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높이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교만은 사람을 멸망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다. 세상의 악함과 자신들의 마음속의 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불순종을 생각해 보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예견되어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알려주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이 땅, 우리 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을 찾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길을 준비하셨으며 그 길로 걸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우



리는 그 길을 택하고 주신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해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 일에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큰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는 우리 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공의와 자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마음과 삶에 그리고 사회와 세상 속에 들여와야 한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우리는 전쟁에 용감한 대장부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통로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된다. 즉 그분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습관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힘써 싸워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깨어 곧 자신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래 열렬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 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6-1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리하시니라” (요 4:26)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루었느냐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니라” (사 41: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고후 7:1)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촉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엡 6:10-18)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흄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딤전 6:10-14)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이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이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솟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맘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6-8)



그렇다. 거룩함은 어떤 외적인 것이나 황홀한 기분을 느끼는 그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있다. 거룩함은 성령의 교훈과 책망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생명이다. 거룩함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자. 우리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그 말씀은 내 삶의 규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우리는 전진하기 위해 우리의 표준을 높여야 한다. 세상의 관습과 행위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품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과 겸손, 그분의 자기희생과 자아부정이 더욱 깊고 넓게 들어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밝히 깨닫게 되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자.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고 기도하며 따르자. 매일 매순간 자아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며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곧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호소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영광의 빛이 비추일 것이다. 성령의 경고와 호소를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여온 사람들은 결코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때에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자.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취함을 받은 거칠고 탁한 돌들이 아닌가. 하

종의 개념

경배와 섬김, 언약관계를 내포

- 이스라엘에게 적용
-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종인 메시야에 적용

우리의 유일한 신앙

-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서 용서가 이르러온다
-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 이 의는 우리의 영혼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 이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활동적인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산 믿음이 되어준다

성경에 제시된 유일한 택함

-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 택함을 입었다
-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도록 택함을 입었다
- 인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그리고 믿음의 선한 씨움을 싸우도록 택함을 입었다
- 인간은 원수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앞잡이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모든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거스려 씨울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중에 놀아두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택함을 밟았다
- 인간은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피해가도록 택함을 입었다
-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성경은 정의한다

예배

- 거룩한 곳이나 성전을 찾으므로 우리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가듬어야 한다
-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 성령으로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 능력을 줄 것이다
-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 이것이 거룩함이며 참된 경배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자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취함을 받은 모 난 돌들이 아닌가. 우리는 선지자들의 책망과 경고 그리고 권고와 권면으로 죄악을 받아야 하며 그 말씀에 의하여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 맡겨진 사업으로써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꼴지어지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켜 주님의 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을보다 깊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 11:7-9)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산 자의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진주와 벽옥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욥 28:12-2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 이니라” (잠 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9:23,24)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 까지 이르도다” (시 19:2-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 119:105,106)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평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20)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 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5:4,5,6)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 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렘 10:23)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 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146:5)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 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



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고후 6:14-18)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 5:7)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금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 1:1-5)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벧후 1:3,4,10)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Isaiah 42, 43

이사야서 42장, 4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리시고 그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으며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나타내셨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자신을 알리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막힌 담을 허물으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셨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며 함께 먹고 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날들 동안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며 이 경험의 노래는 아직껏 하늘에서 불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구원의 노래이며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노래로써 하늘에서 불려질 새 노래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 곧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큰 투쟁이 따른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하



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도덕적 성품을 이루어야 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일이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과 시기심 그리고 탐욕과 탐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의심이나 질투나 악한 추측과 같은 모든 것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심령은 부담을 느껴야 한다. 하늘을 얻고자 하는 사람 모두는 이 심령의 부담을 갖고 주님께 살 길을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원칙을 두고 사는 삶에는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의 시련들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있는 못되고 못난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정결한 심령과 하늘에 적합한 성품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곧 시련과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에 우리의 눈은 보이는 불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불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과 불멸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기와 불순물만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연단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 불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와 유혹에 대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큰 축복임을 생애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우리의 눈과 귀가 하늘을 향해 열려지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과 약점과 단점을 식별하는 밝은 눈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모든 책망과 교훈과 경고를 놓치지 않는 예민한 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이 일에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작고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의 양심은 깨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요”(약 1:22)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유품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

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
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
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
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
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
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
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
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
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
고하노라” (골 1:14-29)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
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 10:5-7)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가 누구냐 그는 눈이 멀어도 나의 종이 아니냐 그는
귀가 먹어도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가 아니나 그는 눈이 밝으나 아무것도 보
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로다” (사 42:19)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

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 3:1)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막 8:36,3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자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7,18)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눅 11:34)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 3: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2-14)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흄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후 3:11-14)



Isaiah 44~47
이사야서 44~47장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사야서에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 분명하게 적혀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옛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 성인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져야함을 가르치셨다. 옛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아야 하였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빛을 전 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창 12:3)라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천하 만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며 호소하셨다. 이 교훈과 책망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며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임무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에게 힘과 용기가되었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사 11:9)것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는 승리의 함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사 25:7)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는 산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른 비로써 이 땅에 와 계시며 곧 늦은 비로써 우리에게 충만히 내릴 것이다. 의에 주리고 그 의를 갈망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계수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8,19)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22:17,18)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16,29)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이 내릴 것이라” (욜 2:23)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 5:7,8)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 그 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리” (벧후 3:11-14)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늘아 노래하라 여호와가 이를 행하였음이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하라 여호와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음이라” (사 44:21-23)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경을 따라 배워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탕자를 기다리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 알지 못했던 탕자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기다리시며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고 계신다.

그렇다. 우리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참 모습과 자신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기쁨과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이 땅의 부모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가슴 아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지 않은가. 돌아가자, 하늘 아버지께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1,22)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아주 적은 관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겨 맞아주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굽복시키는 일 곧 생활의 개혁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신을 알고 통회하는 자가 되어 가르치시는 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확신시켜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눅 9:2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것이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눅 19:41,42)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눅 15:20,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 16:7-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1,13)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러한 것을 형제들에게 상기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딤전 4:4-7)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전 6:12)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 1:3,4)

감사와 찬양의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줄 것이다. 불만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만약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는 그 고통과 시련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은 나의 모든 약점과 결점을 알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말로 표현될 때에는 그 생각과 감정이 더 강하여진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릴 때 얻어지는 축복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심령을 훈련시키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끊이지 말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 사상과 감정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잠잠히 순종하는 삶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의무가 된다.

비할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로 묶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말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 46:4)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리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후 9:12)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계 7:1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않도록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15-22)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사람들이다. 만약 우리들이 모든 성경 말씀을 파악하고 그 오묘를 알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도리어 성경의 오묘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이라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분의 품성 곧 신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하게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은 주제와 하나님의 영광의 오묘를 다루고 있다.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준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오묘함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추어 두신 것이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결코 하늘의 신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를 열어 설명해 주신다 해도 가장 높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으로도 그 신비를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성장할 것이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들

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증거들 위에 믿음을 세우고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의 눈은 이 땅을 넘어 영원의 세계를 주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 즉 그분의 품성의 영광과 오묘가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펼쳐질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며 그 믿음은 우리를 배운 그대로 “실행하는”(약 1:25)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올바른 식사와 바른 습관에 의해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성경대로 먹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의 피와 뼈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각자가 매일 진리를 먹고 사는 삶 가운데 있을 때만 얻어지는 귀한 경험으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칙 곧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요소가 될 때 그 사람의 생애에는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말씀의 능력은 생애 가운데 배양된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며 사단의 형상을 지녔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한다. 말씀으로 인해 오는 변화는 말씀의 가장 깊은 오묘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기록된 그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고 하신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비밀에 대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모든 다른 오묘를 푸는 열쇠가 되어 우리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곳까



지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사 35:8 KJV)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적혀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안목으로 쓰여진 역사와는 참으로 다르다.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는 인간의 자만과 편견과는 거리가 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건들을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역사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으며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처럼 적혀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그 사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움을 입는지를 알게 한다.

생애를 계획하는 우리의 안목은 이제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안목으로 바뀌어야 한다. 새롭게 되어지는 안목으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에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날들로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구하자. 우리의 생각은 영원에 미치는 고상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생각은 하늘처럼 넓고 높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잠재해 있는 세속적인 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 표면적이고 세속적인 영광이 영원에 비추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알아야 한다. 권세있고 화려했던 바벨론의 영광은 “풀의 꽃”(벧전 2:24)과 같이 사라지지 않았던가. 그렇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다 이와같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의 역사와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눈에 보이는 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차이를 알게 할 것이며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영원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셨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니라” (벧전 1:10-12)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모든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셨다 하니라” (겔 12:27,2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면류관을 제하며 왕관을 벗기고 이것을 바꾸어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패망케 하리니 이것이 다시는 없으리라 마땅히 올 자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지니라 내



가 그에게 주리라” (겔 21:26,2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행 17:26,27)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그를 범민하게 하리니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단 11:44,45)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가운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 12:1)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기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만약을 사서 눈에 밟아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계 3:14-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 24:4)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24:9-21)



Isaiah 48~52 이사야서 48~52장

옛 이스라엘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이키라는 조언을 거듭 주셨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 지금 이 세상에도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초청은 얼마나 분명하게 선포되었는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이 주어졌다. 팔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우리 각자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따라 길을 걷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악하다고 할 것이다. 좀 더 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맑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며 그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사단에게 말해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쪽지 아니하리라”(요 6:37)고 약속하셨다.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들어보자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미 2:10)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사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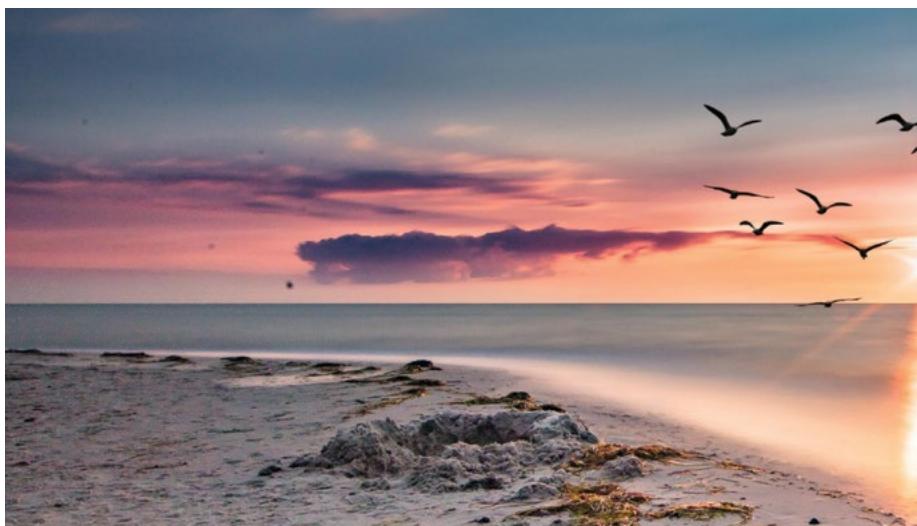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를 들어보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 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6,7)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27-3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 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 (사 41:10)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불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사 41:13,14)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행하리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8:9-11)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음모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의 악한 계책들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준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자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7-18)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히 12:11)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앓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덤케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3-16)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이 마음 깊은 속을 드러내며 우리 품성의 여러 면들을 들춰내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 1:4)가 되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세련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과정은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지만 사람은 이 방법에 의해서만 불순물과 찌꺼지가 제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어디를 깨끗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시련의 풀무 속에서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시며 그 시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

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맘형님이시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애의 시련과 고난들을 견뎌야 할 이유와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이 나타나 보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다. 날마다 우리는 그 날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날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이 날마다 필요하다. 아무리 크고 많은 과거의 경험일지라도 현재의 신앙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 → 시험 → 낙망 → 멸망

하나님 → 시험을 허용 → 연단 → 인내 → 소망 → 영생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면 → 마음 속에 늘 살아있는 원칙이 된다



* 진리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난다

활동적으로 일하는 삶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II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케 한다

진리가 지식만으로 남을 때 → 원칙이 없으므로 항상
흔들리는 마음이 된다 →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온다

* 아무리 큰 분량의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진리가 생애의 살아있는 원칙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새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일 뿐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요 1:29)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꼼꼼히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에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실제로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곧 그분의 손에 있는 뜻자국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하늘까지 올 수 있는지 알려주셨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쉼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각자의 밀실이다. 하나님의 법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약속인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사 26:20)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 49:1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내어쫓지도 아니하셨다. 그들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들에게는 이혼증서가 없었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우리들의 선생이 되셔

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하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으며 매일의 의무를 지시기에 필요한 힘을 받으셨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며 감사한 일인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성을 가지고 사시면서 우리가 겪을 모든 어려움들을 체험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당신의 생애의 모본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그러나 이 신비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이 비밀은 인류에게 공개된 것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는 환한 빛으로 드러나는 비밀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한 빛을 매일의 삶에 원칙으로 삼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분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비밀이 공개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환한 빛이 세상에 전해질 때에 우리 모두는 그 빛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오류와 기만은 사단에게서 온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이기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부심과 질투심은 인간의 마음에 지극히 두렵고 치명적인 것들을 심어 놓는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높이

는 일이다. 자기찬양의 정신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위나 환경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곧 그의 품성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높은 일을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직 신성한 불을 드려야 한다. 다시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피운 횃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며 도리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단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있게 여기시는 것은 편협함과 위선없이 감사할 줄 알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춰어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즉 우리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결코 자신의 지혜나 인간의 모본을 따라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본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옛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타인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 외의 것으로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적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의지를 강요하는 정신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사랑에 대해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일 뿐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도덕적 감화와 이에 대한 개인

적 책임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부드러움과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세상에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법을 생애를 통해 배워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격동하고 있으며 보여지는 징조들은 불길하지 않은가.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그 어느 것도 신뢰해서는 안된다. 사단은 왜곡되고 기만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를 교묘하게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불법의 비밀”이며 “불법의 사람”(살후 2:3,7)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불법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것인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진 비밀로써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방법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자연히 알게 되어지는 길이다. 말씀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그 법의 원칙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 함께 하는 그분의 군사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애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닉고데모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요 3:3)는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논쟁 즉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논쟁 대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꿀지우시도록 하자. 그러면 하늘나라의 성격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길뿐이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3:12,13)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교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마음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방식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들이 진리를 찾는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에 제시된 이 상징물을 통해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 24:1)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 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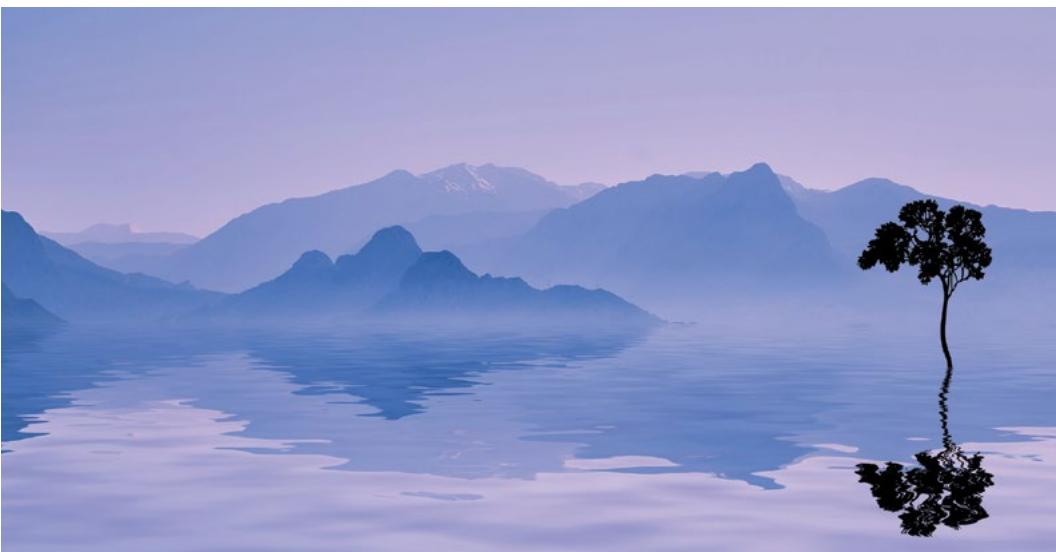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 1:4)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1-5)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헐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9-14)



하나님의 비밀

“옛 비밀한 말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시 78:1-8)



불법의 비밀

“죄, 불법”
(요일 3:4)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살후 2:3,4) (단 7:25)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악한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
(살후 2:7-10)
(단 8:9-12)

“짐승,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계 13장) (단 2장) (단 7장)

“짐승의 비밀”
(계 17: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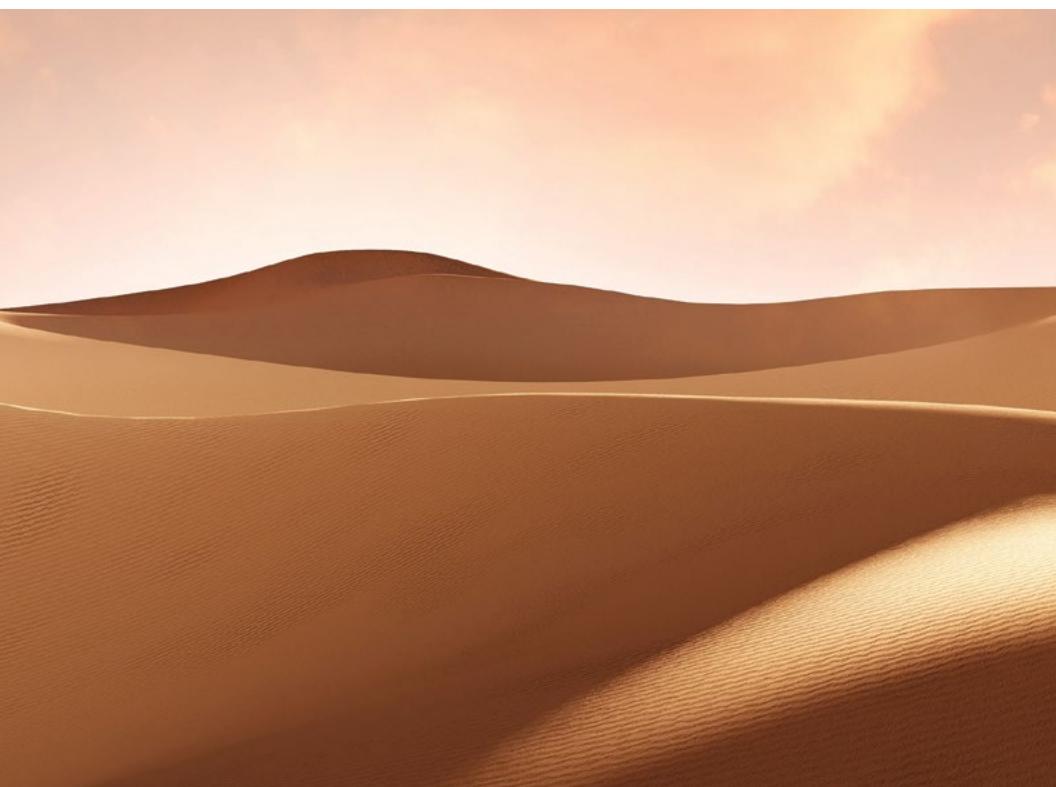
“짐승이 잡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불는 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리라” (계 19:19-21)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 20:7-15)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을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도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며 반역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 78:1-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 13:11)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나니” (막 4: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눅 8:10)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전 4:1)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이제 글을 적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니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하였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



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니 너희를 위한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엡 3:2-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기를 구하라” (엡 6:19)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3-29)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2,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로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 4:3)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딤전 3:9)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딤전 3:16)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20)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 10: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1-7)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자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계 22:1-5)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일 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 2:3,4)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단 7:25)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이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살후 2:7-10)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훌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불인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혐통하였더라” (단 8:9-12)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서 올라오니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 13장)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12)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20)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 73:22)

“내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로
자기가 짐승과 같은 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
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한 가지 호흡이 있어 사람
에게나 짐승에게나 차이가 없음이니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 3:18,19)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일곱 때가 그의
위에 지날 것이라” (단 4:16)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
의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벧후 2:12)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또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들을 멸망하는 짐승같이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삼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 1:9-11)

“또 성령으로 감동된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앓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본 열 뿐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함께 한 때에 왕권을 받으리라” (계 17:3-18)

“또 내가 보매 짐승들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이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불는 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이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 19:19-21)

“또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7-15)

우리는 “의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원칙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긴 세월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법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당신을 알고 교제하며 하늘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보화들을 아낌없이 베풀시며 이순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이시며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신다.

옛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 말씀에 계시되어진 메시야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걸맞는 메시야에 대한 생각으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사 52:14)라고 묘사되어진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던가. 민족의 소망으로 기다려왔던 메시야를 그들은 지나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들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말씀들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베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계 19:13,16)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사 52:15) 그분께서 이때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지 않은가.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 알아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일 4:1-12)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내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이 1:7-9)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 4:14-16)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셨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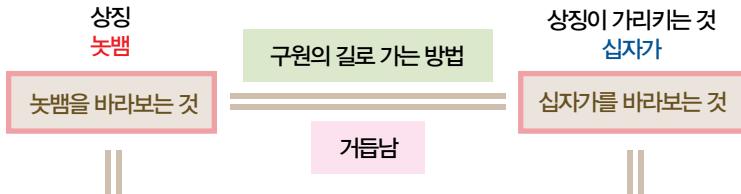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0-13)



Isaiah 53~57
이사야서 53~57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 55:1-3)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 성육신



-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왔기에 그것이 자신들의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 그들은 희생제물이 가리키는 장차 오실 구속주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 자체에는 낫뱀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이 있지만 낫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다
- 낫뱀에는 치료하는 능력과 그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들은 하나님께로 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그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 이 사실들을 믿는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증거 해야 하였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하나님께 기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 나타나야 하였다
-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 옛 뱀 곧 마귀, 사단의 치명적인 독소 곧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차와 능력과 효력을 믿는 것. 그분은 이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자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
- 성령을 보내시어 이렇게 믿는 자들을 양육 하신다는 것. 곧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주린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
-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상태가 무력함을 아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 하”(요 6:31)신다는 약속을 믿고 “은혜의 보좌”(히 4:16)앞에 담대히 나아 가는 것
-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사는 것
-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
-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

신앙 생활

신앙 생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이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곧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힘을 계발시켜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효능을 믿기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써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
-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 어떤 것을 해보려는 생각을 결코 품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단 하나의 주의사향이며 하나님의 경고이다.
-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곧 자신들의 공로나 선해 보이는 일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그들은 닉고데모처럼 외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행 4:12)다는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공로나 유익을 주지 못하며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행 5:31)다고 가르친다.

그렇다. 용서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곧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요 1:29)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의 연구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그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주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 인도함은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을 넣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이 일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지금 우리들은 이 사업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최고의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닉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닉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범을 듣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16)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고치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새롭게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죄를 인식해야 하며 그 자신은 그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롬 7:9 참조)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봉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의 그분의 봉사 또한 깨닫고 믿음으로 그곳에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 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의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증

영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곧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성령의 사역인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교훈에 따라
죄를 이기고 의를 배우는 자들의 생애

십자가를 쳐다보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

죄를 이기고 의를 입고 사는 경험에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삶 가운데 거룩한 실제로 존재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사랑에 생명으로 돌아간 자

새 피조물

우리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시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기능해 볼 수 없는 영원한 세대에까지 미칠 것이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유의하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성육신, 십자가, 거듭남

하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재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구속사업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늘에서의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인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의 성결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남의 방법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 3:9)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 15)

뱀에 물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단 하나도 없다. 그들처럼 우리 또한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공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롬 8:3) 나신 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된다. 우리의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놋뱀에 무슨 효력이 있는지 의심을 품거나 왜 그런지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단지,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은 그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이 필요하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찾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에게 하늘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질문

역사를 통해 보여지는 허다한 증거들 앞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는가

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가 그들의 뜻 안에서 분명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여 있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 옛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뱀에게 효력이 있는지 또한 왜 쳐다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쳐다봄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하나님의 축복 곧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축복을 얻으려고 오랜동안 기다리고 노력했으나 그 일에 실패하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청의와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중 단 하나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은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해보려는 스스로의 뜻과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의 공로나 선한 행위가 자신을 구원하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람의 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요 15:5)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빌 4:13)다는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곧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공로와 선행이 자신의 구원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한줌의 진흙일 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것이며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Isaiah 58~66 이사야서 58~66장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작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 시행하신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시작으로 2300주야의 기간적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실제로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참으로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 아닌가. 하늘에서는 이런 엄숙한 일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형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우리는 진리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하자. 스가랴서 3장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곧 그의 죄로 더럽혀진 품성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의 옷과 함께 우리에게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높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



도를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이며 공효이다.

이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우고 따라갈 때 성장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자라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을 디디고 일어나는 사람 곧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속사업의 완성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일에 쓰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롬 8:28)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심판을 알리신 것은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짐승의 표의 환난에서 승리하여 하늘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마음이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복음”(계 14:6,7)을 통해 심판을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사람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에 그분의 뜻에 합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계 14:7)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인류에게 주신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의 중요함을 십계명 중 제4계명으로 알리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날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곱째 나팔 시대인 지금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계 10:7)는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그것은 이 시대의 개혁자들을 통해 “역대의 파괴된 기초”(사 58:12)인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는 제4계명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사는 길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진흙이라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곧 그분을 닮은 성품을 이루는 그것이라고 알려주신다. 경배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고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개혁은 경



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 어져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로 되어지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그 분의 약속을 주장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 곧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행하는 신의 성품에 참예한 자가 되어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분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5-22)

“어떤 울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눅 10:25-28)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8:4,5)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 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5:15)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앓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육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 1:3,4)

“네께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 58:12-14)

이사야서 58장에는 금식의 날인 대속죄일에 행해져야 할 일들이



적혀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믿는 대로 행하며 살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 곧 봉사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갖고 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사야서 58장에는 봉사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적혀 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지정하신 길에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크고 광범위한 일터를 열어놓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 제시되어진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따를 것이다. 이 축복과 능력은 그들을 동여매고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과 경건한 모본의 성장을 이루어 그들의 일터인 세상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것이다.



엄숙하고 두려운 시기에 자기들의 금식 곧 자기들의 종교 행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굴복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교적인 허세 즉 자기들의 믿는 바와 그 의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신다.

참된 금식과 기도의 정신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굽히게 한다. 우리는 세속적 정신과 수단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필히 진리로 정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옛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경건의 증거로 내세운 금식과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부르셨다. 그것은 그들의 동기와 행위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돋는 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주의 돋는 손이 되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여 배운 대로 사는

것

우리 앞에 행하는 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의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보여주신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 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보장하셨다. 우리는 이 보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위치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자.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꺽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빙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6,7)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

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하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25-28,36,37)

깨어지고 통회하는 정신이 없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성경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자. 우리에게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의 내적인 역사 = 영혼의 겸비함 = 그리 스도인의 필수요건 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나아오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분은 전심으로 당신께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다 받으실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 이니이다” (단 9:1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 5:3-1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기억하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메워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못하도록 속박하는 일을 결코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멍에 곧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뜻을 굽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멍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옛 이스라엘의 죄를 경하게 여기지 말자. 그 옛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알기 원했던 사람들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들은 실제로는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으며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를 한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과 탐심을 품고 있었다. 이와 꼭 같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면밀히 자신을 들여다보자. 거짓을 회개하는 진지한 회개와 이기심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남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과 세상의 형편에 대해 성경은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사 59:14,15)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한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요구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과 우리의 의무



이사야서 58장에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두가지로 제시한다.

- ◉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데를 수보하는 자라”(사 58:12)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기초는 하나님의 법인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재건되어져야 할 기초는 허물어진 하나님의 법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옹호해야 하며 그 법의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 중의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은 오래 전부터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었으며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의 쟁점이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대신 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서의 한 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대신하여 다른 한 날을 경배의 날로 정하는 일에까지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사단의 공격을 아시고 십계명을 통해 그 날을 “기억하여”야 할 것과 그 날을 “거룩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 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여 기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칠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한다. 제칠일 안식일은 세상 끝에 사단이 베풀 큰 전쟁 곧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사이의 쟁점이 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단 7:25)하는 세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그 세력으로 대표되는 짐승의 권세를 받은 또 다른 짐승이 그 우상을 세울 것에 대해서도 알게 한다.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키고 따라야 할 주제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 날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전해준다. 이 시대의 그리



스도인들은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그 어떤 편견이나 불이해를 버려야 한다. 이 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십계명 중 제 4계명으로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기억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제칠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다. 만약 인류가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간직했더라면 사단은 이 지구에서 발 붙일 조금의 땅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날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은 쇠퇴하였으며 거의 잊혀졌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찾고 그 날을 회복할 것을 명하셨다. 기억할 것은 이 지구의 창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땅에 지구와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지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창 1:2,31, 2:1-3; 계 12:7-9 참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창조 전에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이셨다. (벧전 1:20, 계 13:8)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식의 열쇠”(눅 11:52)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제칠일 안식일의 뜻과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정립시켜야 한다.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일 곧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데를 수보”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

대의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성경 이외의 다른 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는 안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따라 성장하기를 구하고 바라자.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거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쉬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5:14,1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 12:6-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18)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 55: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사 58:12)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그분의 특별한 보배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용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며 의무가 된다. 그렇다. 우리들은 제칠일 안식일을 성경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은 그저 그 날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 날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또 명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3:34, 14:15)고 하셨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생활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롬 13:10)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분의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일에 우리는 힘써 일어나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따를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늘과는 무관한 자 결국에는 사단의 앞잡이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계발시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야 한다. 곧 나만을 중시하는 이기심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타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3,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행함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 모본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헐벗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분의 눈에는 모든 영혼이 참으로 귀중하다. 지치고 병들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동정과 긍휼을 느끼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유혹을 경험하신 우리의 만형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 아픈 상태를 그대로 느끼시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하는 분이 되셨다. 그분은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성품을 제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고민하시며 애쓰시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자들에게 주어진 가치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최고의 동정과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군사들로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특권이며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하는 것으로서의 그분의 날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14:6)신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고치고 다시 만들어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또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삶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사는 것으로써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법이기에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지정해 주신 제칠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은 인류 역사상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그 날은 제칠일 곧 토요일을 가리킨다.

이 안식일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과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고를 기억하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9-12)

명심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즉 진리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영이 필요로 하는 이 진리 곧 그분에 대한 목 마름이 채워져야 한다.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할 것이며 세상과 사람 앞에 안식일을 증거할 것이다. 사람의 육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봉사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하신 봉사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이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어 실천되어질 때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다음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2,13)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한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마 12:9-12)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책망과 경고가 들어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워지지 않은 겉치레의 삶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혹,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곧 금식과 기도와 자선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평가되어질 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평가에 바리새인들처럼 어찌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냐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사 58:2-5 참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 곧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 곧 겉치레로 세워진 신앙은 믿음이 아니고 죄라고 분류한다.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

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셨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 58:1) 명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안식일은 세상 끝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

가 되심을 믿는 사상과 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인으로써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의 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것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이며 또 회복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이며 우리의 의무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이제 깨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모른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것이라”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사 58:11,8,9,14)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배우자. 이것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눈을 뜰 것이며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리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시 26:2)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24) 아멘.

제칠일 안식일 회복의 의미 = 율법과 복음의 조화 = 영원한 복음
=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조화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이 시대를 위해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 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6-12)





지금은 참으로 엄숙하고 중요한 때이다. 다니엘서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속죄일의 시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초막절 또한 아주 가까운 때가 아닌가. 옛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회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니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저녁 곧 아홉째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라” (레 23:27-32)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자녀들을 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 책에는 이 시대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적혀 있다. 또한 참 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를 펑박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역사까지 알려주고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책이며 성경적으로 밝히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갖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알려주며 이 시대의 형편을 이렇게 알려준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만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4-22)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허영과 교만을 보게 된다. 자신의 실체는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자신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우리의 치료제로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제시하신다. 이것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의의며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안약 곧 무엇이 진리이며 오류인지 가려낼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지구 위의 모든 신실한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이었으며 교회 시대의 신실한 선구자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이들과 같은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역사는 단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결코 바뀐 적이 없으며 하늘에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삶에서 행해지는 산 믿음만이 성경에 근거를 둔 믿음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에는 천사 곧 하나님의 전할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로 상징된 천사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

훈과 경고가 적혀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복음과 같은 것으로 영원한 복음이라 불리워진다. 그것은 성령의 강한 힘인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전한다.

우리는 다니엘서 7,8,9장의 연구를 통해 이 심판의 장소와 시기와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는 때이며 그 장소는 하늘 지성소라고 알려준다. 또한 에스겔서 9장에는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벌할 자들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되 각 사람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멱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멱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치도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인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겔 9:1-6)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호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的 멸망을 알려주신다. “큰 성 바벨론”的 이름은 “불법의 비밀”이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계 17:5,18:2)이라고 알려주신다. 그렇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자이며 자신의 멸망을 알고 분내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유혹하는 자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른다. 사단의 패배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며 믿음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는 성령의 가르침이시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할 터인즉 그가 분노하여 나가 많은 무리를 죽이며 진멸하려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영광스러운 성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마지막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단 11:44,45)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 12: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 16:7-11)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 17:5)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8:2)

이렇게 우리에게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그분께서는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 것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 것을 끝으로 경고하신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에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



해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이 인내를 이렇게 선언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성경에는 짐승의 정체와 그가 어떻게 우상을 세울 것인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그 우상으로 몰아갈 것인지 그 전반적인 짐승의 역사가 상세히 적혀져 있다. 짐승은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반대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사단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준다. 사단으로 대표되는 용, 옛 뱀은 그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주며 그 짐승은 자신의 대리자인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우상을 세우게 할 것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 그리고 11장에는 사단과 짐승의 정체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 그 교훈에는 두 짐승이 대표하여 등장하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곧 멸망되었다가 다



시 권세를 잡은 교황권을 말하며 또 다른 짐승은 “새끼양 같이 두 뿔”로 세워졌던 나라 그러나 용처럼 말하는 곧 사단의 정신과 사상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강요할 나라가 될 미합중국을 가리킨다. 배도한 기독교 세력이 될 이 나라는 첫째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 하나의 법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경배를 강요할 목적으로 세워지는 법으로 경배의 날을 바꾸어 가짜의 안식일을 만드는 법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은 큰 권세를 받게 될 것이며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단에게로 끌어갈려고 할 것이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해 되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



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 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 13장)

이렇게 오류가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온 그러나 진리를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 바벨론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니 땅이 그의 영광으로 밝아지더라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1-4)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몰락과 그 정체를 밝히며 그 곳에서 신앙을 위해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은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호소가 적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이 어떠할 것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시는 일이시다.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 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 25:1-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깁김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빛을 발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 60:1-3)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 가

셨으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시며 그 생애 가운데의 약점과 결점을 나타내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알려주어 우리가 깨어나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잣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되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삖을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 3:1-6)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와 때가 이르기까지 이르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단 7:9-14)

결코, 늦지 않았다. 그분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추이를 성경과 비교하며 살펴보자.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될 것이며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하늘자성소의 문이 닫혀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의 마지막 중보사역을 끝내시고 그 문을 닫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때 이 땅에 일곱재앙이 내릴 것이며 그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공중에 임하실 것을 알려준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1-3)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계 15:1)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오던 그 어느 때보다 큰 지진이 있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리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 우박의 재앙이 심히 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계 16:17-2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 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뿐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1-14)

여기에서의 환난은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을 이겨내는 자들이 지나가야 할 야곱의 환난이라 불리워지는 환난을 가리킨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은 날이 없으리라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
로되 그가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렘 30:7)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야곱의 생애를 배울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속이는 자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알게 된다. 우리 또한 그가 경험했던 압복강 가의 씨름의 경험을 할 것이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 (창 32:28)는 기도의 싸움을 할 것이며 야곱처럼 백절불굴과 견인 불발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보일 것이다.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흔들리지 않았음을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우리의 승리를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세상을 보라! 육천년의 죄악 가운데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천연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할진대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광경은 어떠하겠는가! 감히 헤아려볼 수 없는 곳, 우리의 눈과 귀로는 알 수 없는 그곳 그러나 새 마음으로는 그려볼 수 있는 곳.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후 3:8-14)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나의 백성을 즐거워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리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 65:17,18,19,25)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사 66:22,23)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핫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두루마키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섬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5, 10-14)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니엘서·요한계시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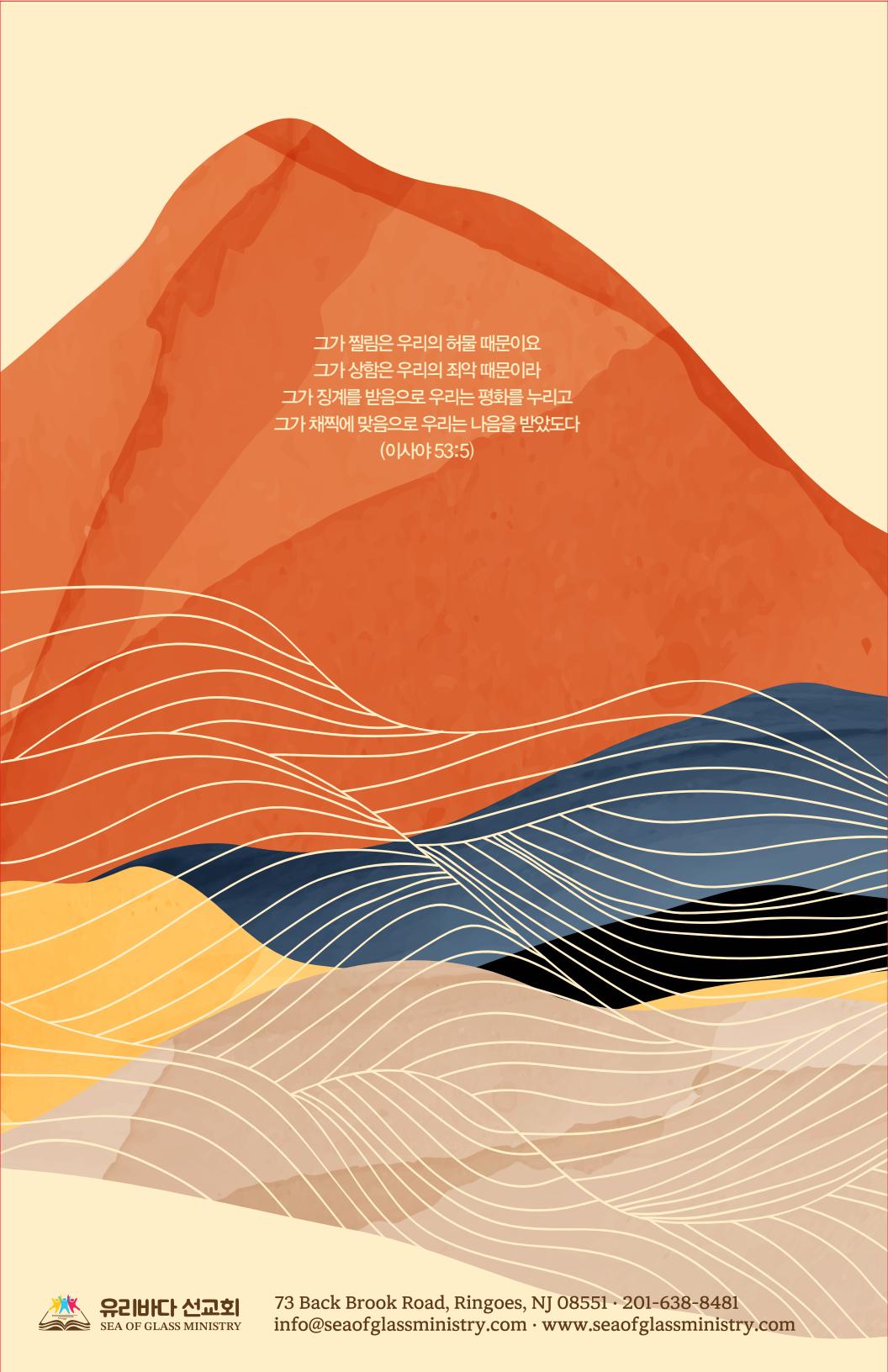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사야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